

문화의 자연 상승

허세욱

고려대 중문과 교수

40여년 전 대만 유학 때,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도 말과 글이 따로 있느냐고 물었다. 몹시 쓸쓸하고 꽤 씁했다. 얼굴을 붉히면서 “있구 말구” 하면, 빙긋이 웃으면서 반문했다. ‘하우 아유’나 ‘땡큐’를 어떻게 말하는가 하고, 나는 일부러 ‘안녕하십니까’나 ‘감사합니다’ 처럼 한자어로 구성된 일상어를 피한 채 ‘오랜만입니다’나 ‘고맙습니다’로 대답했다. 그것을 배우느라 찢찢매는 것을 보고 속으로 고소해 했다.

그 뒤 많은 중국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볼멘 소리로 같은 동양이면서도 서울에선 까막눈에 된다고 하소연했다. 거리 어디를 보아도 한자 간판이 없는 데다 도로를 달려도 한자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다 한자를 병기한 간판을 발견하면 당장 소리내어 읽으면서 고향친구를 만난 듯 환호했다.

최근 들어 중국의 넓은 시장에도 우리 문학이 상륙했다. 권위 있는 문학지에 우리나라 젊은 작가의 정치소설이 번역됐는데, 그 유려한 역필이 흠뻑 관심을 끌었지만 서울의 골동거리가 ‘人事洞’, 남산 밑 필동이 ‘畢洞’, 영등포 여의도가 ‘如意島’, 한일합방 때의 반역자 이완용이 ‘李宛榮’ 등으로 번역되었음에는 고소를 금할 길 없었다. 중국 역자의 실수였지만, 반세기여 걸쳐 정책적으로 고수했던 한글 전용의 반대급부다.

사실 우리들의 지명이나 인명이 단순히 음표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그것들이 표음으로 전달되었다면 분명 문화사실의 오도인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정부의 도로 표지판과 공문서의 한자병기안은 위의 폐단을 없애면서 동북아 한자문화권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문화정책은 줄속적인 경우가 많았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땅 허리에 38선이 그어진 뒤에 이뤄진 많은 것, 한글전용이나 학력고사 등이 그랬다. 그러한 역류 속에 개선이나 개혁은 바람직했다. 무릇 인류의 역사는 길과 함께 발전됐다.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이용될수록 평화롭다. 그 길에서 까막눈으로 두리번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모든 나라의 문자를 표지판에 나열해야 하느냐고 힐난하지만 그렇지 않다. 기왕 외래어를 허용할 바에야 한자 정도는 병기돼도 무방하다. 그리고 우리 문화와 한자의 관계는 이미 체질화한 관계다. 결코 외국어나 외국문자로 취급할 수 없다. 문화적으로 한자는 우리의 고문어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어요, 정서적으로 우리의 문화권이 유가임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는 동양사람들의 함축적이면서 완만한 정서 표현에도 알맞은 도구다.

그렇다고 50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한글전용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다만 개선하는 일을 주저할 수 없다. 여기서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해 모든 사람은 말문을 열되, 때를 만들어 봉당의 아집을 부러서는 안된다. 그 봉당에서는 정치판에서 당리당락을 위해 한가지 의견으로 통일해서 힘을 규합하는 버릇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관행화돼 있던 출판에서의 한자병기는 이제 정착됐다. 그 병기의 범주에서 한자의 이해가 넓어지는 것은 문화의 자연 상승일 수도 있겠다. 중국인들이 우리 소설을 읽을 때, 엉뚱한 뜻으로 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말이다. ♦

- 표지 인터뷰 2 '푸른 도서관'을 꿈꾸는 젊은 교사들
10명이 달마다 2만원씩 모아 10년 후 건립
- 특집/90년대,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4 '거대담론'이 사라진 자리에 상업성 바람이
90년대 문학출판의 지형도를 풀어본다
김영현/김이구/이문재/채호기
- 8 문학평론가 30인이 뽑은 90년대의 작가와 책
신경숙/유하/최명희/백무산
- 10 베스트셀러로 돌아보는 90년대 문학
- 11 탈이념의 사회상황 반영한 대표적 논쟁들
- 12 상업주의 그늘에 질게 드리운 문학상과 작가
- 13 90년대 한국을 찾아왔던 세계의 문학
- 14 1999년의 작가가 2009년의 작가에게 띄우는 편지
한강/백민석/조경란/전성태
- 얼굴 16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에 재임된 나춘호씨
한국출판협동조합 새 이사장에 선출된 최선호씨
- 시간기 17 바스키 지음 《춤스키, 끝없는 도전》을 읽고 - 강준만
- 연재기획 18 한 시대의 종말과 또 한 시대의 개막 - 강철주
건국 50년, 책의 사회사 ② 건국과 전쟁
- 특별기획 22 21세기에도 빛날 20세기 고전 ③ 한국 사회과학편 - 이은진
- 전시회 화보 24 책과 예술세계가 나누는 환상의 대화
- 가성대담 26 헤게모니 이론가 그람시와의 대화 - 배병인
- 만화 27 책과 오과장 - 박시백
- 마케팅 캠프 28 세분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 한기호
- 이 책 그 사람 30 《우리 언론의 숨겨진 신화개기》 펴낸 김정기 교수
《우리는 가족이다》 펴낸 박금준씨 가족
- 31 《떠난 꿈, 남은 글》 펴낸 박설호 교수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서》 펴낸 서수용씨
- 서평 32 코벨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 임두빈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 초고》 - 조유진
- 33 성원경 《민중미술 모더니즘 시각문화》 - 심광현
- 34 김 무디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 이영희
피터슨 《현대수학의 여행자》 - 김용운
- 확대서평 35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세 책 - 김은실
- 36 새책 속으로 / 40 새로 나온 책 / 48 독서퍼즐